

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
26-1-2
(공개)

온기가 지방으로 펼쳐지는

「모두의 지역상권」 추진전략

2026. 3. 25.

관 계 부 처 합 동

「모두의 지역상권」 추진 전략(요약)

I 상권 진단 및 시사점

□ **(진단)** 수도권 중심 일극체제 상권 발달로 지방상권 쇠퇴 심화

① (위기) 전국 1,227개 상권 중 핵심상권(상위 10%, 123개)의 약 2/3가 수도권 소재(서울 43개, 경기·인천 36개)

- 유사한 인구분포에도 수도권 상권의 매출은 지방의 4배로 소비행위가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

* 인구분포('26.2. 주민등록인구) : (수도권) 2,610만명, (지방) 2,501만명
점포당 월매출(핵심상권 기준) : (수도권) 1.6억원, (지방) 4,376만원

② (기회) 임대료가 싼 지방 구도심에서 특산물·문화자산 등을 활용한 청년들의 로컬창업이 집적되면서 일부 지방상권은 활기 회복

* 사례 : (충주 관아골) 공실률 '16년 60% → '24년 12%로 감소

- 한류의 영향으로 지방의 특색을 담은 로컬상품의 구매수요와 색다른 로컬 체험을 직접 즐기려는 외국인의 관광수요가 증가

□ **(시사점)** 지역다움으로 상권의 활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점·선·면의 입체적 지방상권 지원정책 추진 필요

① (點 : 창업) 지역 고유자산에 로컬 창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혈해 지역소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로컬기업 집중 발굴

② (線 : 성장·집적) 지역 앵커기업(핵점포)*을 키우고, 다양한 로컬기업이 모여들어 볼거리, 먹거리, 즐길거리가 풍부한 상권 조성

* 대전 성심당, 부산 삼진어묵, 강릉 테라로사, 군산 이성당, 전주 풍년제과 등

③ (面 : 확산) 지방정부·지역기업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에 소비자·기업을 유입시키고 지역 상권을 브랜드화

Ⅱ 추진 전략

< 추진 방향 >

추진 목표	① 수도권외의 활력을 지방 상권으로 확산 ② '지역다움'으로 강해지는 상권 조성 ③ 지역공동체의 자율·창의가 활발한 상권협력 모델 구축		
추진 전략	[點 : 창업] 활력 상권의 씨앗, 로컬창업 활성화	[線 : 성장·집적] 성장하는 로컬기업, 모여드는 상권 조성	[面 : 확산] 전국으로 펼쳐지는 활력 상권

1

[點 : 창업] 활력 상권의 씨앗, 로컬창업 활성화

①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한 모두의 '로컬창업'

- (로컬기업 발굴·지원) 국민참여 평가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명 발굴, 로컬기업 1천개사 육성('26~, 사업화자금 3천만원, 경진대회 우승 1억원)
 - 지방 로컬창업 지원 비중을 90%까지 확대([現] 79% → [改] 90%), 권역별·분야별로 로컬창업 멘토단 구성·운영('26.2Q~, 400명)
- (AI 3종 서비스) 자연어 검색으로 상권 분석, 지원사업 정보, 노무·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❶「AI 도우미」서비스 신설('26.4Q),
 - 상권 데이터*를 분석해서 매장 운영시간, 메뉴, 상품단가 등의 특화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❷「AI 네비게이션」제공('27.上)
- * 실거래 품목별 데이터(POS), 결제수단별 비율·실매출(VAN), 카드 소비패턴 등
- 푸드·패션·뷰티 등 업종 특성에 맞는 ❸「AI 교육과정」구축('26.4Q), AI전문기업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원('26. 2천명)

② 지역문제 해결형 로컬창업 촉진

- **(농어촌 소득 증대)** ❶ 지역 특산물 수확기에 원물을 대량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을 지원하여 지역주민과 동반성장 촉진('26, 1,000억원 금융권 협업)
- ❷ 청년농업인(연 2천명)과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로컬창업 육성, 인구감소지역 내 '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'(100명) 운영 지원 농식품부
- **(빈건물·빈집 활용)**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서비스 창업 허용 (도농교류법 개정), 마을단위 빈집을 창업공간으로 재생 지원 농식품부
- **(지역관광·서비스 강화)** 고유 문화·관광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·실증 지원 문체부, 돌봄·의료 등 사회연대형 로컬기업* 지원 강화
* (대상) 지역의 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

2

[線 : 성장·집적] 성장하는 로컬기업, 모여드는 상권 조성

① 민간 주도의 로컬기업 성장 촉진

- **(성장자금)**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(최대 5억원), 사업화 자금(최대 2억원) 등을 지원
- 성장성·잠재매출 등에 기반한 「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」 도입('26.3Q) 금융위
- 지역성장펀드 등을 활용하여 로컬기업 전용펀드 최대 2,000억원 조성(~'30)
- **(기술혁신·제조)** 상품 브랜딩, 디자인, 수출용 상품 패키징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, 생산설비가 없는 경우 위탁제조 지원
- **(수출기업화)** 「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그램」 신설로 상품개발·마케팅·판로 등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(최대 1억원, '26년 95억)
- 아마존(미국), 쇼피(동남아) 등 글로벌 플랫폼 연계 온라인 수출 지원

② 로컬기업이 조성하고, 지역기업이 돕는 골목상권

- **(로컬기업 집적)** 지역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터잡은 로컬앵커기업이 주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멘토링 및 동반성장
 -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컬기업 집적지가 상권으로 발전하도록, 창업, 마케팅·브랜딩, 인프라 등을 지원('26. 50곳 → '26. 1,000곳 목표)
- **(골목상권 조성)** 전문투자사 등이 유휴 건물·상가를 리모델링하고 특색있는 로컬기업을 보육하는 「로컬창업 스튜디오」 운영
 - 지역관계형 영업을 영위하는 소비재·유통 기업, 금융회사 등과 협력하여 유망 로컬기업마을을 만드는 상생모델 확산
 - 정부는 지역기업 등과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되도록 교육, 상권 매니저 지원 등을 연계하고 기업의 상생실적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*

*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실적을 동반성장지수,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반영

3 [面 : 확산] 전국으로 펼쳐지는 활력 상권

① K-컬처를 즐기는 대표 관광상권 조성

- **(글로벌 관광상권)** 방한객이 집중된 서울 外 지역으로 관광소비가 널리 퍼지도록 지역대표 관광상권 17곳 조성(~'30. 상권당 50억원)
 - * (방한객 관광지) 서울 78.4%, 부산 16.2%, 경기 10.0%, 제주 9.9%('24. 관광공사)
- 관광객의 시각에서 상권을 평가하는 대국민 참여평가로 선정
 - * 대국민평가단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현장평가시 외국인 체험단 운영
- 여행플랫폼사 협업 패키지 관광 프로그램 개발*, 상권 맛집지도 제작 등 방한객이 지방 고유의 K-컬처를 쉽게 향유토록 유도
 - * 지역관광·K-팝 연계 코스·체험, 교통·숙박, 통역 등을 결합

- **(체험소비형 특화상권)** 지방의 특색있는 「로컬 테마상권」 50곳을 조성하여 지방의 **미식·문화유산·체험활동** 등을 소비토록 지원
 - * '30년까지 상권 50곳에 2년간 최대 40억원 지원

< 로컬 테마상권 유형별 예시 >

① 미식형(음식)	강릉 안목해변(커피 거리), 춘천 명동(닭갈비)
② 문화유산형(전통·역사)	경주 황리단길(첨성대·대릉원), 군산(적산가옥)
③ 체험형(액티비티)	양양 서피비치(서핑), 평창(겨울 스포츠)

-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「백년시장」 12곳을 조성하여 역사·문화를 기반으로 **전통시장을 국제 명소화**
 - * ('25.12.) 2곳 선정 : 수원 남문시장, 전주남부시장
 - ('26년) 10개 전통시장을 선정하여 2년간 최대 30억원 지원

2 상권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강화

- **(내몰림 걱정없는 상권)** ①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편법 개선을 위해 **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**(상가임대차법, '26.5.~) **법무부**
 - ②임대인 - 임차인 간 임대료 안정화 등을 위한 **상생협약 체결**(現 24곳) 확산을 통해 **소상공인 내몰림 최소화**
 - * 지역상권법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시 지방세 감면, 융자, 활성화사업 등 지원 가능
- **(지역상권 보존)** 상권의 특색있는 자원을 보존·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**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에 대해 국비 지원사업 우대**
- **(골목상권 특별법 제정)** 지역경제의 싹틔줄인 골목상권의 조직화, 브랜딩, 판로, 공동사업 등을 **법적 근거를 갖춰 체계적으로 지원**
 - 지역별 특색있는 기획을 위해 **권역별로 상권기획 전문회사***를 육성 (연 50개사)하고, 지역공동체 등이 **함께 출자****하는 **상권혁신펀드 조성**

* 등록, 전문교육, 활동내용 공시 등 관리체계 구축(지역상권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)

** 출자 : 지역성장펀드, 지역기업·금융기관, 민간투자사, 상인 등

↳ 상권활성화를 위한 AC·VC 등의 투자의무 완화를 임시 허용하는 벤처투자법상 특례 추진

순 서

I. 상권 진단 및 시사점	1
II. 추진 방향	5
III. 「모두의 지역상권」 추진 전략	6
1. (點: 창업) 활력 상권의 씨앗, 로컬창업 활성화	6
2. (線: 성장·집적) 성장하는 로컬기업, 모여드는 상권 조성 ..	8
3. (面: 확산) 전국으로 펼쳐지는 활력 상권	11
IV. 추진 일정	14

I. 상권 진단 및 시사점

1. [위기] 상권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상권 쇠퇴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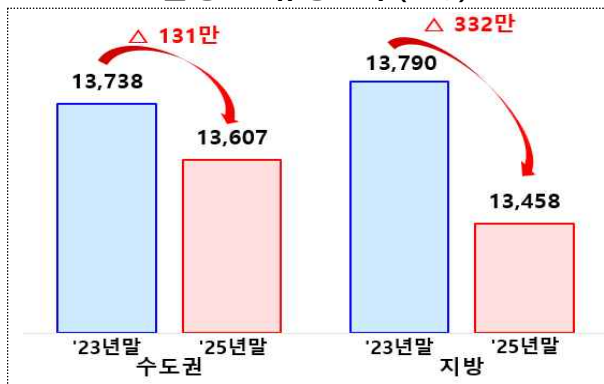
① 핵심 상권의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

- 전국 상권은 수도권과 지방이 약 4:6으로 분포
 - * 전국 상권 1,227개 : 수도권 528개(서울 176개) vs 지방 699개
- 다만, 매출이 크고 유동인구가 많은 상위 10% **핵심상권***의 경우 **2/3가 수도권**에 소재할 정도로 상권이 불균형
 - * 핵심상권(상위 10%, 123개) : 수도권 79개(서울 43개, 경기·인천 36개) vs 지방 44개
- 특히, **서울(43개)은 핵심상권(123개)의 35%가 소재**하여 지방의 상권에 비해 압도적으로 상권이 발전
- 유사한 인구분포에도 수도권 상권의 매출은 지방의 4배로 소비 행위가 주로 수도권에서 발생
 - * 인구분포('26.2. 주민등록인구) : (수도권) 2,610만명, (지방) 2,501만명
점포당 월매출(핵심상권 기준) : (수도권) 1.6억원, (지방) 4,376만원

② 빠르게 취약해지는 지방 상권

- 지방 유동인구는 수도권에 비해 **149만명('25말)**이 적고 감소도 빠름
 - * 지방 일평균 유동인구 : '23년말 대비 '25년말 332만명 감소(2.4%↓, 동기간 수도권 0.9%↓)
- 공실률('24말)은 수도권은 8~10%, 지방은 최고 19.5%(세종 제외) 수준이며, 향후 지방인구 급감*으로 상권 공동화는 심화될 전망
 - * 지방 인구 추이(만 명, KOSIS) : ('24) 2,583 → ('35, 전망) 2,432 → ('50, 전망) 2,200

< 일평균 유동인구(만명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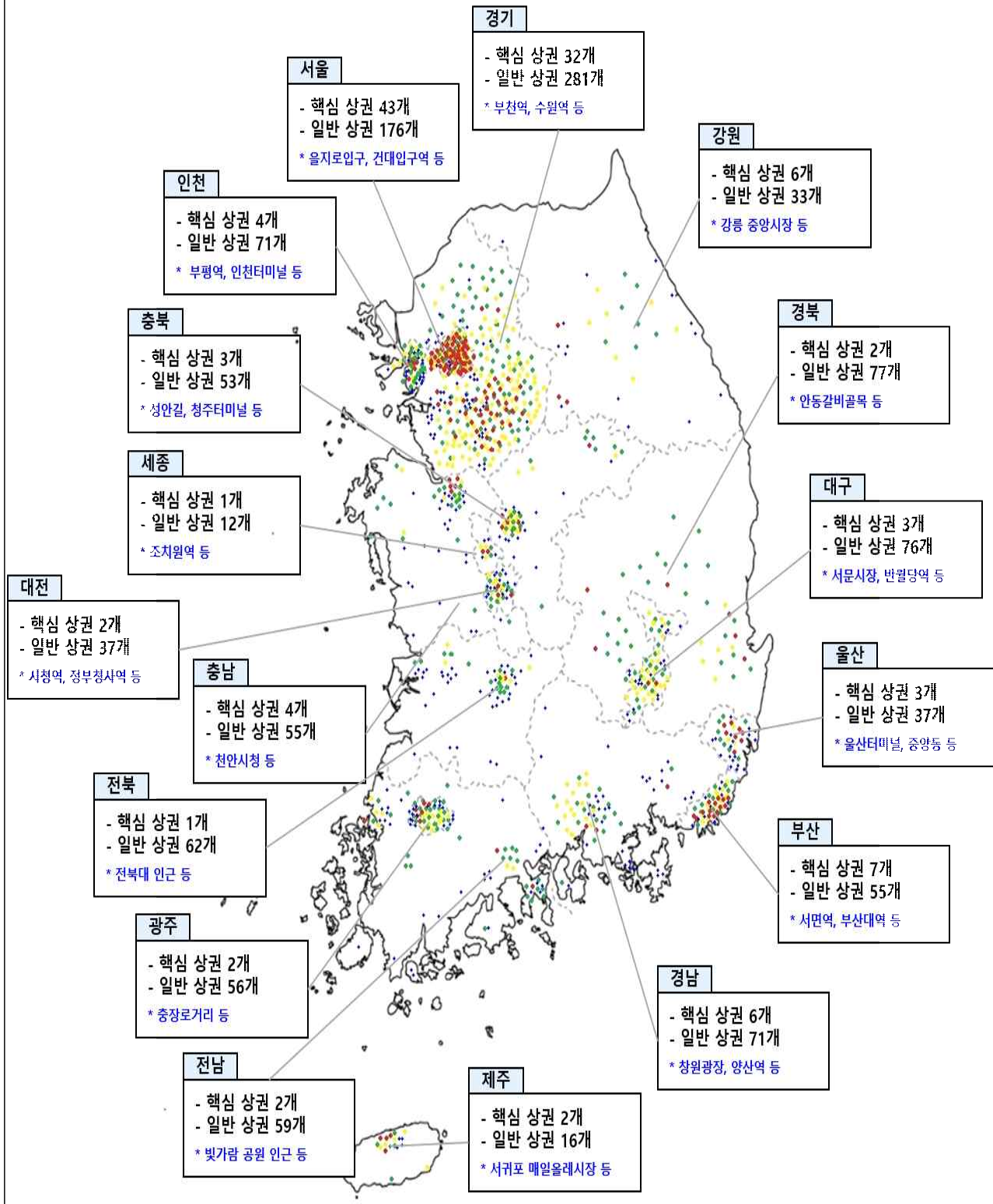
< 공실률(% , '24년말) >



* '25.12월 유동인구 일단위 환산(자료 : SKT)

전국 상권 지도 ('25년 1,227개)

※ 점포당 월 매출구간 : ■ 5천만원 이상(214개), ■ 3~5천만원(307개),
■ 2~3천만원(346개), ■ 2천만원 미만(360개)



2. [기회] 청년, 지역, 한류 · 관광의 만남

① 청년들의 지역기반 생활문화 창업(Lifestyle biz) 증가

- 자기 방식으로 원하는 일을 하려는 청년세대의 가치관 변화로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자본 창직(創職) 수요* 증가

* 로컬창업 선정기업의 청년(20~30대) 비중 61%, 경쟁률 약 20:1

- 지방의 관광 · 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문화 분야* 창업이 가치 · 경험소비 증가, 온라인 유통, IT기술과 맞물려 성공 사례 증가

* 푸드, 패션 (의류, 조향, 가방, 액세서리, 신발), 뷰티, 공간기획, 여행서비스 등

② '지역다움'이 매력적인 상권 등장

- 관광·문화·특산물을 가진 지방 구도심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로컬 창업기업이 집적되면서 일부 지방상권은 활기 회복

* 사례 : (충주 관아골) 공실률 '16년 60% → '24년 12%로 감소

- 100년 이상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전통시장(63개) 등 잠재력 충분

③ K-컬처의 글로벌 수요 증가

- 한류의 영향으로 지방의 특색을 담은 로컬상품의 구매수요와 색다른 로컬 체험을 직접 즐기려는 외국인의 관광수요가 증가

* 뷰티·푸드·패션·라이프 소비재 수출 추이(억 달러, 수출입동향) : ('23) 297 → ('25) 356 (+59)

↳ 수출 참여율(% , 로컬기업/전체 소상공인) : ('22) 6.7/0.8 → ('23) 7.6/0.7

주요 사례

- (수출 : 기린컴퍼니) 지역에서만 소비되고 나머지는 버려지던 감태를 전 세계 미슐랭 셰프들이 선호하는 식재료로 재탄생 (홍콩·대만·중국 등 16개국 수출)
- (관광 프로그램 : 옥희방앗간) 강원도 들깨를 구매하여 제품개발(쿠키,아이스크림 등), 식문화 체험 공간을 관광 콘텐츠화하여 방한객 유입 (월 40팀 방문)

3. [시사점] 지역의 가치를 살리는 상권 조성

1 지역상권의 점·선·면을 확장시키는 정책 지원

- ① (點 : 창업) 지역 고유자산에 로컬 창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수혈해 지역소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로컬기업 집중 발굴
- ② (線 : 성장·집적) 지역 앵커기업(핵점포)*을 키우고, 다양한 로컬기업이 모여들어 볼거리, 먹거리, 즐길거리가 풍부한 상권 조성
* 대전 성심당, 부산 삼진어묵, 강릉 테라로사, 군산 이성당, 전주 풍년제과 등
- ③ (面 : 확산) 지방정부·지역기업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에 소비자·기업을 유입시키고 지역 상권을 브랜드화

2 지역공동체, 민간이 주도하는 상권 혁신

- ① 상인, 상권관리조직* 등 상권 주체와 지역 주민이 상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,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협력모델 구축
* 수원 행궁동 - 주식회사 행궁동, 충주 관아골 - 세상상회, 공주 제민천 - 퍼즐랩
- ② 민간 자본이 로컬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, 상권을 혁신시켜 사람이 더욱 모여드는 선순환 구조 확립
* 민간 투자사의 로컬기업 직접 투자액('23~'25) : 663억 원

우수사례 : 성수동

- (지역가치) 과거 낡은 공장지대였으나 붉은 벽돌 건축물 등 지역 자산을 발굴·보존해 카페거리 등 고유 브랜드로 재탄생
- (로컬창업) 수제화, 패션, 카페, 소셜벤처 등 다양한 업종·분야의 로컬창업이 집적하고, 팝업스토어 등 경험요소를 제공하여 핵심 상권으로 변모
- (민관협력) 정부는 오래된 건축자산 보전 조례 제정 및 도시재생을 지원하고, 임차인·임대인·지역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상권내몰림 방지

Ⅱ. 추진 방향

비전

모두가 즐기는 지방 상권, 활기찬 지역 경제

목표

- ① 수도권인 활력을 지방 상권으로 확산
- ② '지역다움'으로 강해지는 상권 조성
- ③ 지역공동체의 자율·창의가 활발한 상권협력 모델 구축

추진 전략

【 點 : 창업 】
활력 상권의 씨앗,
로컬창업 활성화

【 線 : 성장·집적 】
성장하는 로컬기업,
모여드는 상권 조성

【 面 : 확산 】
전국으로 펼쳐지는
활력 상권

세부 과제

- (조성)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한
모두의 '로컬창업'
- (공존) 지역 문제 해결형 로컬창업 촉진
- (성장) 민간 주도의 로컬기업 성장 촉진
- (집적) 로컬기업이 조성하고,
지역기업이 돕는 골목상권
- (관광) K-컬처를 즐기는 대표상권 조성
- (지속) 상권의 지속성장을 위한
제도 강화

Ⅲ. 「모두의 지역상권」 추진 전략

1

[點 : 창업] 활력 상권의 씨앗, 로컬창업 활성화

①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한 모두의 '로컬창업'

□ 전국의 혁신 로컬기업* 발굴

* (정의)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 고유의 특성·자원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

- ① 국민참여 평가 방식으로 매년 로컬창업가 1만명 발굴 및 로컬기업 1천개사 육성

* 모집·교육(1천명, 2백만원) → 권역별 오디션(6백명, 최대 3천만원) → 대국민 경진대회(13명, 상금 최대 1억원)

- ② 지방 로컬창업 지원 비중을 90%까지 확대([현행] 79%→[개편] 90%)

□ 5급3특 권역별 창업·보육 밀착 지원

- ① 권역별·분야별로 선배기업, 전문 투자사, 세무·노무 전문가를 포함한 로컬창업 멘토단 구성·운영('26.2Q, 400명)

- ② 지방정부가 보유한 빈공간을 활용해 초기 로컬기업 보육을 지원하는 로컬창업타운 확대('26. 10개소 → '30. 17개소)

- ③ 로컬창업 교육을 위한 로컬창업대학 확대 추진('26. 15개 → '30. 20개)

□ AI 활용 3중 서비스 제공

- ① 자연어 검색으로 유동인구·매출·업소 분포 등 상권 분석, 지원사업 정보, 노무·세무 문제를 해결하는 「AI 도우미」 서비스 신설('26.3Q)

- ② 상권 데이터*를 분석해서 매장 운영시간, 메뉴, 상품단가 등의 특화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「AI 네비게이션」 제공('27.上)

* 실거래 품목별 데이터(POS), 결제수단별 비율·실매출(VAN), 카드 소비패턴 등

- ③ 푸드·패션·뷰티 등 업종 특성에 맞는 「AI 교육과정」 구축('27) AI 전문기업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원*('26. 2천명)

* AI 전문기업과 AI 교육, 컨설팅, 사업모델 검증 및 고도화 등 지원

□ 저렴한 창업 공간 제공 및 임차자금 지원

- ① 지역의 유휴공간*을 DB로 구축하고, 현황, 활용사례, 임차료 등 관련 정보를 소상공인 플랫폼(소상공인 365)에 탑재('27)

* 공공임대상가, 전통시장·상권 공유공간, 지방정부 유휴시설 등 창업활용가능 공간

- ② 로컬기업 창업공간 임차를 위한 상가 임차전용 자금 신설('26. 100억원)

* 매출·업력이 없는 초기 로컬창업 기업은 임차를 위한 목돈 마련에 한계

② 지역 문제 해결형 로컬창업 촉진

□ 농어촌 소득 증대

- ① 지역 특산물 수확기에 대량 구매*할 수 있도록 원물 구매 자금을 지원해 로컬기업과 지역주민의 동반성장 촉진('26. 1,000억원, 금융권 협업)

* (예) 한겨울에만 수확하는 감태는 일시 대량 구매가 필요하나 대출한도로 자금이 제약
↳ 매출채권·발주서 등에 기반한 대규모 대출 실행

- ② 청년농업인(연 2천명),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농촌로컬창업* 육성, 인구감소지역 내 '농촌 소셜창업 청년 서포터즈'(100명) 운영 지원 **농식품부**

* 지역 농산물 가공·브랜딩, 농촌 유휴시설 활용 체류·관광 프로그램 기획·운영 등

□ 빈 건물·빈집 활용 창업

- 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서비스 창업* 허용(도농교류법 개정), 마을단위 빈집을 창업공간으로 재생** 지원 **농식품부**

* 현재 빈집문제 해결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'빈집 활용 숙박업' 규제샌드박스 운영 중

** 빈집이 밀집된 마을(10호 이상)에 주거·청년창업·체험시설 등 리모델링 지원('26., 23억원)

- ② 노후·방치 건물을 특색있게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도시채움시설에 로컬창업가 우선 입주 지원(가이드라인 마련) **국토부**

□ 지역관광, 지역공동체 연대 강화

- ① 인구감소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·실증 및 창업 지원('26.) **문체부**

* '배터리(BETTER里)' 사업 ('26. 14개사, 10억원)

- ② 돌봄·의료 등 지역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로컬기업* 대상으로 인큐베이팅, 컨설팅 등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추진('27)

* (대상) 지역의 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

① 민간 주도의 로컬기업 성장 촉진

□ 시장성 기반의 투융자 복합 성장자금 지원

- ① 민간투자를 유치한 로컬기업에 투자금액 매칭 융자(최대 5억원), 사업화 자금(최대 2억원) 등을 지원하는 LIPS* 프로그램 확대

* LIPS (Local & lifestyle biz Incubator Program for Strong Enterprise)

- ② 미래성장성·잠재매출 등으로 평가하는 「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」 도입·활용('26.3Q~) ^{금융위}

* 신용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, 로컬기업 특례보증(금융권 협업) 등 시범 활용

- ③ 지역성장펀드, LIPS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최대 2,000억원 규모*로 조성(~'30)

*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조성하는 지방정부에 상권사업 등 지원 우대

- ④ 지방에 벤처투자회사·창업기획자를 지역별 전담투자기관으로 지정하고, 로컬기업 투자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('25. 28개사 → '26. 60개사)

□ 기술 개발·제조 역량 강화

- ① 브랜딩, 디자인, 상품 패키징 등을 위한 기술개발 제조역량을 강화하고, 제조설비가 없는 경우 위탁제조 지원

* ('26) 창업성장 R&D(50개사, 100억원), 중소기업혁신바우처(75개, 22.6억원)

- ② 특색 있는 로컬기업의 IP 창출을 위한 패키지 지원* ('26. 170개사) ^{지재처}

* IP 보호 교육, 보유 IP 분석·진단·개발 및 상표·레시피 특허·디자인 등 출원 지원

□ 수출기업화 지원

- ❶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그램 신설로 컨설팅·상품개발·패키징 등 현지 맞춤형 수출상품화 지원(최대 1억원, '26. 95억)
 - 성과 우수기업 대상으로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연계 지원
 - * 수출바우처, K-수출전략품목 등 차년도 지원 사업에 가점·연계 지원 (30개사 내외)
- ❷ 아마존(미국), 쇼피(동남아) 등 글로벌 플랫폼 연계 온라인 수출 지원, 국내 탐티어 플랫폼(13개사)와 연계해 국내외 온라인 판로 다각화('26)
- ❸ 인천국제공항 정책 면세점 입점을 확대('26. 1 → 6개소)하고, 제주 국제공항 내 로컬기업 제품 홍보·판매 매장 신설 추진('28)

② 로컬기업이 조성하고, 지역기업이 돕는 골목상권

□ 선·후배가 만드는 로컬기업마을

- ❶ 지역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터잡은 로컬앵커기업(핵점포)이 주도하여 유망 창업기업을 유치하고, 멘토링 및 동반성장

우수사례 : 충주 관아골

- **(로컬창업)** 충주 구도심 골목길에 이세은·이상창 부부가 이름을 결합하여 10년이상 방치된 폐가에 **세상상회**라는 카페를 창업('16년)
 - 이후 공방, 스테이, 카페, 문화기획, 사진관, 베이커리, 여행 등 다양한 청년들이 로컬창업
- **(상권기획)** 세상상회 등이 폐업한 염소탕집을 개조하여 '**로컬창업 스튜디오(고티맨손)**'로 거점화 → 상인들이 출자하여 **상권기획전문회사 '주식회사 보탬플러스'** 설립
 - 고티맨손을 중심으로 충청도 지역성을 재해석한 지역 브랜드 '**애매(EME)**'를 론칭
- **(상권활성화)** 관아골 및 주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세상상회를 비롯한 **로컬창업 기업 70여명**이 창업하고 **집적**하여 충주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성장
 - * 복작, 예반74, 제이플래닛, 블루웨일브루하우스, 유월상점, 책방계, 스테이유담, 선한빛라이프팩토리 등
- **(성과)** 공실률 48%p 감소('16년 60% → '24년 12%), 매년 로컬기업 5~6개소 창업(70개 이상 유입), 유동인구 3.6배 증가('20년 1만명 → '23년 3.7만명)

- ②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로컬기업 집적지가 상권으로 발전하도록, 창업, 마케팅·브랜딩, 인프라 등을 지원(26. 50곳 → '30. 누적 1,000곳 목표)

□ 전문투자사, 지역기업이 키우는 골목상권

- ① (전문투자사) 지역을 잘 아는 전문투자사 등이 유휴 건물·상가를 리모델링하고 특색있는 로컬기업을 모아 보육하는 「로컬창업 스튜디오」 운영

* 골목상권의 로컬창업기업 유치 등으로 테스트베드 → 판로확장 → 스케일업 체계 구축

- ② (지역기업) 지역관계형 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, 소비재·유통기업 등을 중심으로 유망한 로컬기업마을을 만드는 상생모델 확산

* 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거점공간 구축, 프로젝트 실행자금 출자, 그룹 네트워크와 연계한 판로·홍보·마케팅 등 추진

- ③ (정부) 지역기업 등과 상생협력 모델이 확산되도록 교육, 상권 매니저 지원 등을 연계하고 기업의 상생실적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*

* 골목상권을 육성한 상생협력 실적을 동반성장지수, 상생금융지수 평가에 반영

- 로컬창업 페스티벌로 성공사례를 공유하고, 선·후배기업, 투자사·지역기업 간의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(26)

우수사례 : 대전 은구비서로

- (상권브랜딩) 도심내 맹꽂이 서식지에 아파트들이 들어선 것에 착안하여 맹꽂이를 상권의 마스코트로 삼고 '맹꽂이거리'로 브랜딩
- (민간협업) 골목상권과 주민·단골고객들을 연결하기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·운영하고 '맹꽂이장날' 등 생활밀착형 이벤트* 개최, 주민대상 할인 등 공동마케팅을 통해 단골고객을 확대하고 지역민 소비 유입
 - * 상인회-주민 협업으로 맹꽂이 사생대회, 버스킹 공연, 어린이 체험 등 플리마켓 운영('25.10)
- (성과) '24년 일평균 방문객 20% 증가, 청년점포 집적(現 약 20개)

① K-컬처를 즐기는 대표 관광상권 조성

□ 외국인인 전국을 즐기는 「글로벌 관광 상권」 조성

- ① 상권이 고도화되고 방한객이 집중*된 서울 外 지역으로 관광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지방 대표 관광상권 17개 조성(~'30. 상권당 50억원)

* (방한객 방문지역) 서울 78.4%, 부산 16.2%, 경기 10.0%, 제주 9.9%('24 관광공사)

- ② 상권을 관광객의 시각에서 평가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선정

* 대국민평가단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현장평가 시 외국인 체험단 운영

- ③ 방한객이 지방 고유의 K-컬처를 쉽게 향유토록 상권 혁신

- (상품개발) 여행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지역관광·K-팝 연계 코스·체험, 교통·숙박, 통역 등을 결합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
- 「K-관광마켓」, 「지역특화 관광권」 등 관광육성 프로그램 문체부, 「도시재생」 국토부 등과 상권혁신사업을 연계하여 효과 극대화

- (접근성·편의성) 방한객이 핵심포·코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권 맛집지도를 제작하고, 주요 플랫폼* 노출을 통한 여행정보 제공

* 여행객 활용앱 : 구글맵(영미권), 샤오홍슈(중화권), Visit Korea(관광공사) 등

** (사례) 수원 행궁동 상권은 구글맵 등록후 글로벌 노출 증대로 매출 157% 증가('25)

- 보행친화적* 환경 조성, 외국인 전용가이드 운영, 다국어 메뉴·간판, 면세거리 조성 등 방문편의 제고

* 차없는 거리, 주말차량 제한, 보행친화 산책로 조성 등

- ④ 지역공동체의 상권혁신역량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방정부의 지원,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상권 선정

<지역 특색>	<상권 지속성>	<지방정부 지원>
■ 로컬기업 집적 및 지원 ■ 지역자원(문화유산·건축·경관 등) 보존·유지	■ 지역주체간 이해관계 조정 ■ 지속적 관리모델 구축	■ 지역성장펀드 내 로컬창업분야 출자 ■ 상권보존 조례제정

□ 체험소비형 특화상권 조성

① 지역에서만 즐기고 맛볼 수 있는 「로컬 테마상권」 50개 조성(~'30)

- 지방의 미식·문화유산·체험활동 등을 소비할 수 있는 테마형 콘텐츠 개발, 공간조성 지원(상권당 최대 40억원)

* K-미식벨트(농식품부), K-뷰티 클러스터(중기부) 등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제고

< 테마 유형별 예시 >

① 미식형(음식)	강릉 안목해변(커피 거리), 춘천 명동(닭갈비)
② 문화유산형(전통·역사)	경주 황리단길(첨성대·대릉원), 군산(적산가옥)
③ 체류형(워케이션)	제주 애월(코워킹 카페), 전주 한옥마을(한옥 체험)
④ 체험형(액티비티)	양양 서피비치(서핑), 평창(겨울 스포츠)
⑤ 산업형(브랜드·제조)	대구 북성로(공구거리), 청주 오송(뷰티산업)

②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하는 「백년시장」 12개 조성('26. 10곳)

* '25년말 旣선평정 : (수원남문시장) 팔달문행궁 연계 상권 (전주남부시장) 한옥마을 연계 야시장

- 전통시장이 역사·문화적 자산을 기반으로 국제 명소가 되도록 브랜드 컨설팅부터 수익 창출까지 패키지 지원*(최대 30억원)

* 지속 기간별 상설 전통시장 : (100년 이상) 48곳, (70년 이상) 157곳

- 시장 스토리텔링 고도화,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조성 지원

* (예시) 셰프와의 장터 요리교실, 시장 투어 가이드, 메뉴판·간판 등 글로벌 안내체계

② 상권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강화

□ 내몰림 걱정 없는 상권

①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편법 개선을 위해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(상가임대차법, '26.5.~) 법무부·국토부

② 임대인 - 임차인 간 임대료 안정화 등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
(現 24곳) **확산**을 통해 소상공인 내몰림 최소화

* 지역상권법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시 지방세 감면, 용자, 활성화사업 등 지원 가능

□ 지역자원을 보존·확산하는 지방정부 지원 우대

① 상권의 특색있는 자원*을 보존·유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
조례를 제정한 지방정부에 대해 국비지원사업 우대**

* (예시) 전통·역사(한옥, 적산가옥), 건축자산(붉은벽돌), 산업유산(폐공장·굴뚝, 목욕탕) 등

** 글로컬·로컬테마 상권, 유망 골목상권 등 주요 상권사업 지원시 우대

② 지역상권의 현안을 상인, 주민, 기업,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하는
상권협의체 확산을 위한 표준조례안* 배포

* (사례) 성동구 지역통합관리(타운매니지먼트) 조례

↳ (예시) 협의체 투표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, 건물 외관·색채 유지를 위한 경관협정 등

③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방의 재정자주도 등을 기준으로 국비를
(국고보조율 등) 차등지원*하여 재정 부담 완화

* (예시) 기존국비:지방비 = 5:5 → 우대국비:지방비 = 6:4

□ 상권혁신을 위한 인프라 강화 (「골목상권 특별법」 제정)

① 지역경제의 싹틔줄인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 촉진
을 위해 조직화, 브랜딩, 판로, 공동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

② 지역별 특색있는 기획을 위해 권역별로 상권기획 전문회사*를 육성
(연 50개사)하고, 지역공동체 등이 함께 출자하는 상권혁신펀드 조성**

* 등록, 전문교육, 활동내용 공시 등 관리체계 구축(지역상권법개정안 국회 계류중)

** 출자 : 지역성장펀드, 지역기업·금융기관, 민간투자사, 상인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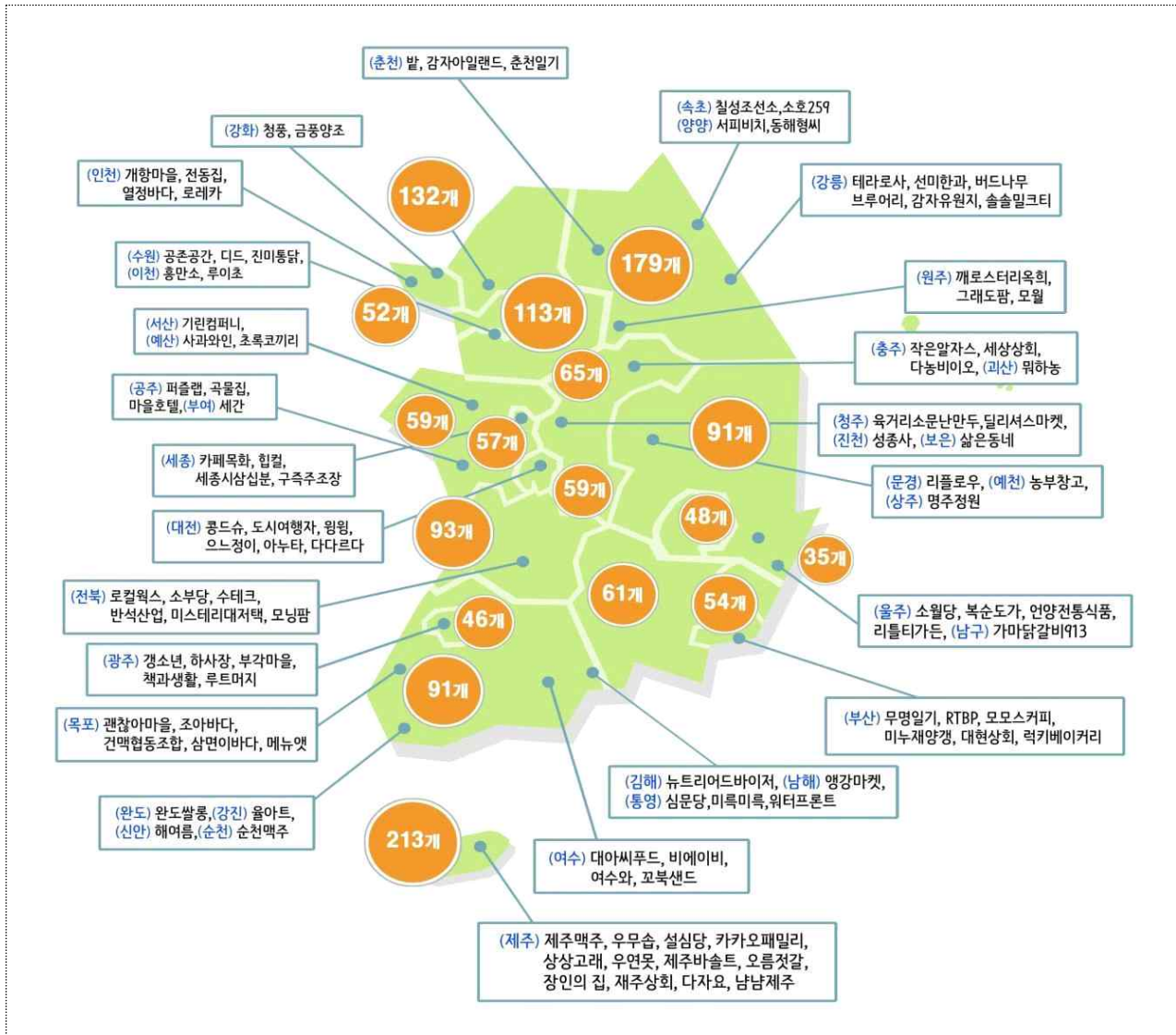
↳ 상권활성화를 위한 AC·VC 등의 투자 의무를 완화하는 벤처투자법상 특례 추진

IV. 추진 일정

추진 과제	소관부처	추진일정
1. [點 : 창업] 활력 상권의 씨앗, 로컬창업 활성화		
① 아이디어만으로 충분한 모두의 '로컬창업'		
전국의 혁신 로컬기업 발굴	중기부	'26.3. ~
5극3특 권역별 창업·보육 밀착 지원	중기부	'26.2Q ~
AI 활용 3종 서비스 제공	중기부	'26.3Q ~
저렴한 창업 공간 제공 및 임차자금 지원	중기부	'26. ~
② 지역 문제 해결형 로컬창업 촉진		
농어촌 소득 증대	농식품부·중기부	'26.2Q ~
빈 건물·빈집을 활용한 창업	국토부·농식품부	'26. ~
지역 관광, 지역 공동체 연대 강화	문체부·중기부	'26. ~
2. [線 : 성장·집적] 성장하는 로컬기업, 모여드는 상권 조성		
① 민간 주도의 로컬기업 성장 촉진		
시장성 기반의 투융자 복합 성장자금 지원	중기부·금융위	'26. ~
기술 개발·제조 역량 강화	중기부·지재처	'26.2Q ~
수출기업화 지원	중기부	'26.2Q ~
② 로컬기업이 조성하고, 지역기업이 돕는 골목상권		
선·후배가 만드는 로컬기업마을	중기부	'26.上 ~
전문투자사, 지역기업이 키우는 골목상권	중기부	'26.上 ~
3. [面 : 확산] 전국으로 펼쳐지는 활력 상권		
① K-컬처를 즐기는 대표 관광상권 조성		
외국인이 전국을 즐기는 글로컬 관광 상권 조성	중기·문체·국토부, 지방정부	'26.上 ~
체험소비형 특화 상권 조성	중기부	'26.上 ~
② 상권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강화		
내몰림 걱정 없는 상권	중기·법무·재경부	'26.5. ~
지역자원을 보존·확산하는 지방정부 지원 우대	중기부	'26.上 ~
상권혁신을 위한 인프라 강화(「골목상권 특별법」 제정)	중기부	'26. ~

중기부 로컬창업 지원현황('20~'25)

< 전국 로컬창업 지도 >



□ 지원기업 수 : 1,445개사 (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기준)

단위: 개사 (%)

지역기반 제조·판매	관광·숙박	베이커리· 카페·식당	서점·출판	공방·공예	복합 문화공간	기타	계
535 (37)	332 (23)	159 (11)	158 (11)	101 (7)	88 (6)	72 (5)	1,445(100)

□ 지원성과('23)

구분	고용	연매출	수출 참여율	투자유치 (백만원/건)
로컬창업 기업	3.3 명	3.96 억원	7.4 %	'22년 92 → '24년 176
전체 소상공인	1.6 명	1.99 억원	0.8 %	-